

‘기선제압’해야 ‘기사회생’



나지완(좌)과 신종길.



1번타자 이대형.



KIA, 마운드 초반 불안...확실한 리드 못하면 승리 못해
대량 득점기회 놓친 뒤 상대 기 살려줘 대량 실점
최근 5경기 선취 득점시 승률 0.769서 0.588로 ↓

1회를 잡아라. 순위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에게 '1회'가 승부처가 되고 있다. 최근 6경기(19일 현재)에서 KIA가 1회 선취점을 낸 경우는 5차례였다. 6경기를 치르기 전까지의 선취득점 시 승률은 0.769. 하지만 선취점을 낸 최근 5경기 결과는 이대형의 선두 타자 홈런이 나온 15일 경기를 제외하고 4패. 덕분에 선취득점 시 승률은 0.588로 떨어졌다. 1회부터 점수를 만들고도 이기지 못하는 KIA. 패배의 충격은 더 크다. 지난 주 KIA는 선발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초반 리드를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이닝이 거듭 될

수록 투·타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1회 선취점을 낸 경기의 공격 양상은 비슷하다. 13일 NC전에서 이대형의 중전안타로 경기를 연 KIA는 상대의 실책과 볼넷 등으로 1사 1·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4번 나지완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신종길의 적시타로 2-0을 만들었지만 안지홍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이닝이 종료됐다. 상대 투수 웨버가 1회 21개의 공을 던지며 어렵게 승부를 했지만 하위타선의 공격이 돌아온 2회를 시작으로 6회까지 KIA는 삼자범퇴를 당했다. 14일에도 이대형과 이종환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상대 선발 에릭을 흔드는데 성공했지만 점수는 필의 희생 플라이로 만든 1점에 그쳤다. 나지완의 병살타가 나오면

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실패했고, 에릭은 불안한 1회를 넘긴 뒤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16일 삼성전. 이대형이 우전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마틴을 공략했다. 박기남의 희생번트에 이어 필의 좌전안타로 1-0. 하지만 이번에도 이게 끝이었다. 나지완과 신종길이 플라이로 물러났고 이후 마틴의 역투가 펼쳐졌다. 18일 경기에서도 이대형의 중전안타와 이종환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선취점을 안고 시작했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1회 22개의 공을 던지며 고전했던 삼성 선발 윤성환은 이후 7회까지 101개의 공을 던진 뒤 7이닝 2실점의 성적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첫 공략 이후 잠잠해지는 KIA의 공격과 중반 이후 난타를 당하는 선발진 탓에 4경기가 역전패로 끝났다. 1회 확실한 공략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기만 살려주는 경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1회 대량 득점의 기회를 놓친 뒤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패전의 타격이 이뤄지면서 상대 선발투수들이 초반 우려와 달리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집중력 있는 1회, 끈질긴 2회가 KIA 선발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희한하단 말이야.” LG와의 경기가 예정된 20일. 이날 오후까지도 경기 진행 여부는 미지수였다.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린데다가 경기 시작을 앞둔 오후 6시까지 비 예보가 있었던 탓이다. 이날 원정팀보다 먼저 훈련을 시작한 KIA 선수들은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 실내 연습장에서 몸을 풀었다. 평소 훈련 등도 생략했다. 하지만 예보보다 일찍 찾아온 비에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비 때문에 하늘만 울려보던 KIA 덕아웃에 회자 된 이름이 있었다. 바로 선발 김진우였다. 이상하게 김진우의 선발 등판 날이 되면 비가 잦은 탓이다. /연합뉴스

비를 몰고 다니는 김진우 “혹시 김진雨?”

비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김진우의 '우'가 비우(雨)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김진우의 시즌 첫 출격이었던 지난 14일에도 마산구장에 비가 계속되면서 우천취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두 번째 등판을 앞두고도 많은 비가 내리자 선동열 감독의 입에서 “희한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게을러봤어요.” 지난 주말에 이어 주중 홈경기가 이어지면서 KIA 선수들은 19일 광주에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주중 원정 경기가 있는 경우 선수단은 월요일 오후 버스에 오른다. 주말과 주중 원정경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광주에 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원정지로 옮겨가기도 한다. 광주에서 월요일을 보낸 선수들. 가족·애인들과 시간도 보내고 여가 생활을 하는 시간. 휴일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필의 대답은 “게을러봤다”였다. 활동적인 성격에 무등산도 가고 소풍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필이지만 휴식이 없는 연전이 시작되면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 것이다. 필은 “모처럼 집에서 쉬었다”고 웃으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HOT’한 사나이 해밀턴

F1 올 4승...마케팅 가치 가장 높은 선수 1위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서 올해 4승을 거둔 루이스 해밀턴(영국)이 전 세계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시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프로가 유로스포츠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4년 가장 마케팅 가치가 뛰어난 운동선수' 평가 결과 해밀턴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7위에 오른 해밀턴은 올해 열린 다섯 차례 F1 그랑프리 경주에서 네 번이나 우승하며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다. F1 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라는 점에서 'F1의 타이거 우즈'로 불리기도 한다. 2위는 인도의 크리켓 선수인 비라트 콜

리가 선정됐고, 3위에는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하는 로버트 그리핀이 이름을 올렸다. 이 조사는 앞으로 3년간 선수의 발전 가능성과 나이, 자국의 마케팅 시장 크기, 팬들에게 어필하는 능력, 주목을 끌어내는 인기, 돈과 직결되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순위를 매겼다. '피겨 퀸' 김연아는 지난해 조사에서 44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순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는 7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4강 무산

유신고에 1-5 패

광주일고의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광주일고는 지난 1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유신고와의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8강에서 2안타의 빈타 속에 1-5패를 기록했다. 0-1로 뒤지던 8회 승부가 갈렸다. 광주일고 선발 한두솔이 경기당 한계 투구(130개) 규정에 따라 마운드를 내려간 뒤, 교체된 투수 김현준이 흔들리면서 대거 4점을 내줬다. 유신고 선발 박재우의 깜짝 호투에 막혔던 광주일고가 0-5로 뒤진 8회 최지훈의 중전안타로 첫 안타를 신고했

만 견제사가 나왔다. 1사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정다운이 최수현의 안타로 2루를 밟은 뒤 폭투 때 홈까지 파고들며 첫 점수를 만들었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 광주일고는 9회 1사 1루에서도 견제사를 당하는 등 집중력 있는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화순고, 동성고에 이어 광주일고까지 8강에서 탈락하면서 지역팀들의 전반기 일정도 마무리 됐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은 오는 3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효천고와 광주일고의 경기와 함께 막이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